

## “아이디어 특공대”, 발명특허의 현장으로 달려간다

### 특허청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네티즌과의 소통 강화

특허청은 발명대회 입상자, 발명 장학생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대학생 10명으로 제1기 블로그 기자단 ‘아이디어 특공대’를 구성하고 지난 4월 9일 발대식을 가졌다.

기자단은 앞으로 4개월 동안 특허청 블로그 기자로 활동하며 발명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기사를 작성하여 특허청 대표 블로그인 ‘아이디어로 여는 세상’ (<http://blog.daum.net/kipoworld>)을 통해 알리게 된다.

선발된 대학생 기자 중에는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관심을 끌었다.

서기태(단국대 컴퓨터 공학과) 군은 제16회 대한민국 학생 발명대회(2003년)에서 입상하고, 제1회 특허청 발명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2건의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생발명가다.

또한 유형택(한세대학교 경영학부) 군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창업가이다.

특허청은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이 창의적인 기사 아이디어 발굴과 작성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지식재산 정책 현장을 진솔하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웹툰, 동영상 등 네티즌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강하는 등 블로그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포털사이트 네이트를 활용해 ‘지식재산 나눔 운동’ 주제의 온라인 프로모션을 시작하는 등 네티즌과의 소통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지식재산도시(IP-City)로 5개 지자체 선정

### 강원 원주시, 경북 안동시, 충북 제천시, 광주 남구, 대구 달서구

특허청은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강원도 원주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북도 제천시, 광주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지식재산도시로 선정하였다.

지식재산도시 지정사업은 도시(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촉진 정책으로, 주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 내 지식재산 자원을 발굴하며 전략산업에 관한 특허정보제공 및 기술거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식재산도시로 지정된 5개 지자체는 지식재산진흥조례 제정,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지재사업발굴, 지역브랜드 개발 및 주민을 위한 지식재산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친 지식재산 문화, 행정, 교육, 유통, 지원 인프라를 마련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식과 기술로 전하는 따뜻한 마음

### 저개발국을 위한 “적정기술 나눔운동” 펼쳐

특허청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공적사회에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특허청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대다수 저개발국들이 최첨단기술이 아니라 물, 식량, 에너지 등 삶에 필수적인 기본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착안, 이러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적정기술 보급운동을 펼치고 있다.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이란 선진국에서 활용 가치가 높지 않지만 개도국 등에선 효용이 큰 기술을 말한다.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을 위해 개발된 휴대용 정수기인 ‘라이프 스트로’가 대표적이다.

특허청은 특허문헌이 기술정보의 보고(寶庫)이자 분류가 잘 되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적정기술을 특허문헌에서 찾아 현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제공하고 있다.

다행히 대다수의 특허기술은 저개발국에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해당국에서 이러한 기술내용을 이용하는 데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

현재 특허청은 민간국제구호기구인 ‘굿네이버스’, 과학자들의 모임인 ‘나눔과기술’ 과 공동으로 아프리카 차드에 사탕수수 껍질을 이용한 숯 제조기술의 보급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숯이 보급된다면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드에서 많이 나는 망고를 가공·판매해 현지 주민들이 수익원으로 활용하도록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굿네이버스 등이 추진하여 몽골에 보급한 휴대용 온돌기 개발에도 협조하여 이 기술의 몽골 내 특허출원을 지원하고 있다.

## 차세대 IP-기반 영재기업인 날개를 퍼다

### KAIST·POSTECH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원 연합교육 개최

특허청은 KAIST·POSTECH과 공동으로 지난 4월 10일(토)~11일(일) 양일간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KAIST·POSTECH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원 연합교육을 개최하였다.

차세대 IP-기반 영재기업인은 MS의 빌 게이츠, 구글(Google)을 공동창업한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와 같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미래 신성장산업을 창출할 창의적인 인재를 일컫는다. 이들을 육성하기 위해 특허청은 작년 9월 KAIST와 POSTECH에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원을 설치하였으며, 작년 12월 최종적으로 181명\*의 차세대 영재기업인을 선발하였다.

\* KAIST 교육원 101명(중등과정 51명, 고등과정 50명)

POSTECH 교육원 80명(중등과정 40명, 고등과정 40명)



## 특허수수료, 이젠 마일리지로 해결한다

2010년 4월 1일 수수료 마일리지시스템 본격 개통

특허청은 개인발명가와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적립된 마일리지로 특허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수수료마일리지 시스템을 본격 개통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마일리지 시스템이란 특허청에 납부한 특허료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동안 민간부문에서는 항공사나 신용카드사 등에 마일리지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있었으나, 공공부문에 마일리지를 도입하여 이를 수수료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은 특허청이 처음이다.

금번 수수료 마일리지 시스템 개통으로 개인은 특허출원료, 설정등록료 등 납부금액의 1%를,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은 0.5%를 마일리지로 적립·사용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특허행정에 관한 제도개선 제안을 한 경우 1인당 1회 10,000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개인, 중소기업 또는 대리인 등은 온라인 특허출원 전용사이트인 '특허路(www.patent.go.kr)'를 이용하여 자신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특허로 이용 시 마일리지 사용의사만 표시하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특허수수료 이외에도 해외출원비용지원, 시작품 제작지원, 특허기술평가지원 등 특허청의 특허지원사업에도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 해외 전시회 참가 한국기업,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

독일 등 해외진출기업, 특허 미비점 보완 후 진출해야

우리 중소기업들이 자사 기술과 제품을 알리고, 나아가 국내 시장을 넘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해외 전시회가 특허분쟁 창구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기업 간 특허분쟁이 심화되면서 CeBIT, IFA 등 독일의 주요 전시회에서 우리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권자의 침해주장으로 전시회 부스 및 전시물품이 가처분·가압류되는 등 전시회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 CeBIT (Center for Bureau,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되는 세계 규모의 정보통신 전시회
- IFA (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박람회

이는 전시회 개최가 활발한 독일 특유의 법집행에 의한 것으로, 상대방 의견청취가 없이 결정되며, 긴급히 집행되는 등 특허권자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어떠한 법적대응을 못한 채 압수수색·가처분 등을 당하게 되므로, 홍보의 장이 되어야 할 전시회에서 오히려 기업 이미지를 실추하게 되어 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되므로 전시회 참가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한국특허영문초록, 해외 특허분쟁 사전예방

### 한국특허영문초록 품질 강화로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강화

특허청은 최근 해외에서 국내 특허기술의 침해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특허영문초록(KPA : Korean Patent Abstract)의 품질 강화 및 활용도 향상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국특허영문초록은 국내 특허기술을 영문으로 요약한 것으로, 1979년부터 제작되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40여 개국의 특허청 및 유관기관에 보급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특허와 유사한 기술이 주요국에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내 지식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영문초록은 영어권 국가는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도 자국의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발간·보급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는 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라 한국특허영문초록이 국제특허 심사 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필수문헌에 포함되면서, 주요국 특허심사관들의 활용이 증가하여 품질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 관계자는, “주요국에서 국내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분야별 전문인력을 통한 전문성 확보, 번역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 검수, 외국인 검수 확대 및 해외 만족도 평가 등 품질 강화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올해부터 보급처로 포함된 필리핀, 이집트와 같이 우리 기업의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등 신흥 개발도상국에 한국특허영문초록을 보급·확대하고, 온라인 검색서비스(www.kipris.or.kr)도 강화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특허심판의 오답노트 나왔다

### 『심판 필수체크포인트집』 발간

시험공부를 해 본 모든 사람들은 틀린 문제를 자꾸 틀리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소위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답노트를 만들어 한번 틀린 문제는 다시 틀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특허심판에서도 심판관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특허청이 『심판 필수체크포인트집』을 발간함에 따라 위와 같은 문제는 더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심판 필수체크포인트집』은 특허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원인을 분석하여, 심판관이 심판사건을 처리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사안들을 심판 종류 및 사례별로 정리하였다.

기존에도 심판실무지침서로서 심판편람이 있었으나, 그 내용이 방대하여 손쉬운 실무활용이 어려웠던 반면, 『심판 필수체크포인트집』은 심판관이 심판사건을 처리하면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요점 위주로 제작되어 그 효용성을 높였다.

또한 『심판 필수체크포인트집』은 초임 심판관의 교육 자료로도 활용되어 선배 심판관들의 실수가 초임 심판관들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